

24. 바벨론의 멸망

2012. 6. 10.

금빛 새벽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5장에 나타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사실을 살피겠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5: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였더라.

1. 다니엘 4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었을 때 다시 왕위를 누리게 되었는데, 존귀에 처하는 것이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겠지요?

답: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2. 그도 사람인지라 죽었겠지요. 그가 죽은 후에 그 나라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바벨론은 황금 머리로 표상되었지만 그리 오래 계속된 왕국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43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었는데 2년 왕으로 있었는데, 그 매형인 네르갈살레셀에게 암살당했지요. 그렇게 처남을 죽이고 왕이 된 네르갈살레셀은 4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 라바시마르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왕이 된지 2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인 나보니더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왕이었지만,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그가 자기 아들 벨사살을 동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테마정벌하고 거기에 자기 궁을 짓고 살았는데, 이 벨사살 13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바벨론의 역사이지요. 대략 65년 쯤 유지된 왕국입니다. 강하기는 했지만 아주 짧은 국가 운명이었네요.

3. 다니엘서 5장은 바로 바벨론이 망할 때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바벨론의 멸망은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요 나보니더스의 아들인 바벨론의 동위 왕은 바벨론 도성이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중에 바벨론 성에 있는 남궁이라는 곳에서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잊어보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신들에게 특별 제사를 드리며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배하려는 것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대단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

시며 금은동철 목적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때 왕이 앉은 자리 맞은 편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왕이 너무나 놀랐지요. 성경 기록을 한 번 보지요. 단 5:6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너무 놀란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이 장면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 속한 그릇으로 먹고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24:1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하지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한도가 지나면 심판하시고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3.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5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이라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4장에서 왕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5장은 왕인 벨사살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행사보다 훨씬 나쁩니다. 바벨론이 한계에 이른 것이지요. 이제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달아보니 그 시대가 끝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종말을 심판으로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한 예언적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4. 바벨론 멸망을 선고하는 심판 사건이 결국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실의 예언적 사건이라는 뜻이군요. 구체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아까 잠깐 말한 대로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시내에 있는 남궁이라는 곳에서 귀인 일천명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앉은 맞은 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고 겁에 질렸는지는 조금 전에 성경구절을 읽었습니다. 왕만 놀란 것이 아니지요.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급히 갈대아 박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태후가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왔지요.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읽어보시지요. 단5:10~12절입니다.

[단5:10~12]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낮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

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태후는 나보니더스의 왕비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다니엘을 잘 알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벨사살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지요. 연세도 많고 또 그의 아버지가 반란으로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귀인들을 초청하여 벌인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 나이가 많아서 현직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중하게 쓴 사람이라 아마도 느부갓네살과 정책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배격했을 수도 있지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는데, 태후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식 이름을 말했음에도 벨사살은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아서 느부갓네살이 한 것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을 박사장에서 해임한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급한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5. 왜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약속했지요. 총리를 시키면 둘째 치리 자가 아닙니까?

답: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벨론 국가 행정 사정은 상식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테마라는 곳에 별궁을 짓고 거기 살고 있었고, 그 아들 벨사살에게 동위 왕위를 주어서 바벨론에서 치리하게 하였거든요. 동위왕이란 아버지 왕과 같이 왕위를 나누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더스가 첫째 치리 자요, 벨사살이 둘째 치리 자이고 국무총리가 되면 셋째 치리 자가 되는 것이지요.

6. 목사님,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다니엘서를 공격한 사람들은 바벨론 역사책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왕이 없고, 바벨론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벨사살은 실제로 존재한 바벨론 왕이 맞는지요?

답: 바벨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은 아마도 베로스서의 기록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로스서는 바벨론의 사제였다고 하는군요. 그 역사 기록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없고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바벨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벨사살이라는 가짜 왕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다니엘서의 영감과 계시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1924년에 시드니 스미스가 대영박물관에 수집되어 있는 점토판 38.299호에서 “나보니더스의 관한 한 절의 이야기”를 연구하여 출판함으로써 벨사살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가 아버지가 테마에 있는 동안 바벨론에서 왕권을 행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책의 기록보다 성경이 더 역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지요. 이런 사실은 고고학의 발달로 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니까 벨사살에 대한 것만 말합니다. 결론은 벨사살이 확실히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7. 왜 역사가들이 그런 사실을 책에 기록하지 않아서 후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했을까요?

답: 글썄요, 고대 역사책에는 나라에 수치되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앗수르의 산헤립왕은 유다를 침공하여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지만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신당에서 신에게 경배할 때 두 아들이 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뿔뿔이 역사책에 기록하지 않았지요. 그가 유다의 점령한 고을들에 대하여서는 기록했지만 그의 십팔만 오천이나 되는 군사들이 하루 밤에 다 죽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사상이 나보니더스가 테마에 가 있고, 벨사살이 바벨론에 있을 때 나라가 망하였으니까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단의 감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만드는 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웃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이 사람을 사이에 두고 대투쟁을 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건건이 방해하여 구원의 사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단의 이리니까 능히 그렇게 하지요. 이 세상은 사단이 멸절될 때까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권에 있거든요. 그러나 고고학으로 사단의 공격이 무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2:8에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고고학은 땅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성경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외칩니다.

8. 고고학으로 벨사살이 살아났군요. 다니엘서의 역사적 사실성이 잘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 나라의 셋째 치리 자였네요. 다니엘을 그 직위를 받았습니까?

답: 다니엘이 해석을 했으니까 약속한 직위를 주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였기 때문에 소용없는 직위였고 자칫하면 페르시아 군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직위이지요. 적국의 총리대신이니 점령군이 체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한창 강성하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를 한 다니엘에게 총리 직위야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대답을 보시지요. 단 5:17입니다.

[단5: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의 대답이 아주 분명하지요.

9. 그렇군요. 다니엘은 즉시 왕에게 그 해석을 했습니까?

답: 아닙니다. 먼저 왕의 허물을 책망합니다. 긴 기회를 허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하게 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의 책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지요. 단 5:18~24입니다.

[단5:18~24]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21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이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보실 때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 기간을 거두십니다. 바벨론의 이 상황이 그렇고 벨사살 왕의 개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같은 처지에 이르지요.

10. 왜 왕의 장관들이나 술객과 박사들이 벽에 쓴 글을 읽지 못하였을까요? 그 글을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로 기로고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글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또 다 추측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 글자 자체를 읽었다고 해도 그 의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또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지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음 글자만 써 놓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읽는 법을 배워서 읽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적혀 있으면 자모는 읽어도 단어는 못 읽지요. 히브리어도 같아요.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5세기에 히브리 전통학자들이 발음기호를 만들어서 성경 단어마다 붙였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발음기호를 배우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했지요. 그러나 벨사살 시대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이지요.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읽게 하신대로 읽고 그 뜻을 풀도록 한 것입니다.

11. 이제 그 글씨와 설명을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아마 간단히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네요. (김목사: 만일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지요.) 그렇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보지요.

[단5:25~28]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해석이 간단합니다. 바벨론 멸망 선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첫째는 바벨론의 시대가 이미 끝났으며 둘째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인에게 준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기는 우바르신이라고 읽고 해석할 때는 베레스라고 했는데, 베레스는 단수이고 바르신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말과 음이 거의 일치합니다. 바르신은 쪼개다는 뜻이 있으니까,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의 종말에 계시록에 기록된 영적 바벨론 멸망의 예언적 표상이 됩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 세어보니 세상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판단을 발표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그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은혜로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호흡하고 말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선고가 선포될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날 우리는 달아보니 넉넉하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2.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애청자들께서도 당연히 그런 판정을 받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도 가르쳐주시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은혜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달아보아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나와 함께 하늘에 살자는 판결문을 듣도록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